흘어지는 교회의 假想 목회

서울의 "강목사"는 40대 후반으로 그래도 차세대 지도자로서 얼마 전에 부각된 유능한 목회자다. 그러나 그는 지금 심각한 결정을 하였다. 그가 섬기던 교회를 본다면 무엇 하나 걱정할 것 없는 완벽에 가까운 교회이며, 장로들과도 불화가 없고 교우들도 모두 존경과 협력으로 30만 명이 넘는 교회로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교회이다. 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는 물론 大小事에 보충되는 모든 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점이 없었고, 꿈에 그리던 대교회의 건축도 이제는 앞두고 있다. 그는 안식년에는 성지순례에다가, 매년 휴가는 미국, 유럽으로 다녀올 정도로 부족함이 없고, 더욱 교회는 잠재적 부흥의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사임**"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물론 이 일로 교회의 장로들과 제직들이 놀란 것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가족들도 무척이나 당황을 한 것이다. 난처한 큰 문제가 있는가 하였으나, "**강목사**"의 사임 변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으로 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장로들이 와서 사임의 번복을 권하면서 "목사가 떠나면 나도 떠난다". "이러면 우리 교회는 죽는다"는 여러 유혹과 도저히 물리칠 수 없는 권유로 그의 사택은 늘 눈물바다로 뒤 덮었다.

"가장 유능하고 문제도 없는데 떠난다니 그것이 무슨 말이야, 그것도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니 가족들과 당신의 장래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말들이 많았다. 그래서 "**강목사**"는 한 주일 더 연기를 하고 다시 주일 낮 예배에 서서 그의 심중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확고한 소명으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염려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열정에 붙잡힌 여러분을 보자니 오히려 저는 더욱 이제는 떠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저를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주님을 보십시오!. 저를 부르시고 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가도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개척지, 고난의 시골, 거기에 바로 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소위 똑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능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욱 안심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을 바로 그곳, 부흥이 안 되고, 평생 미자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의 불을 붙혀 보렵니다. 목회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시골의 약한 교회를 굳이 선택하려는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신 주님을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답은 강도 만난 여행자를 규명하므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에 어떠하였는지 지금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 저러한 이유나 사상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

습니다. 다만 누군가 와서 속히 병원으로 옮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그는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 누가 와서 자기를 옮겨 주겠다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를 이해를 해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목회적 관점에서,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는 옷을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몸에 상처를 입었기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치에 그는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도 남보다 뛰어난 재력가요, 대단한 임무를 가지고 자기의 삶에 충성을 다한 인물이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농촌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늘 거반 죽게 된 지경에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것은 자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혀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일이 일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 팽개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나눌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이요, 농촌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하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되십시다.

이제 제가 염치불구하고, 감히 후임자를 천거할 터인데 받아드려 주시겠습니까?, 최악의 목회지에서 고생만 한 "타 교단"의 "김 전도사"를 천거합니다. 물론, 문제를 잘 압니다만, 꼭 받아 드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하여 "내 교회만"이라는 작은 신앙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믿고 갑니다. 평안하십시요, 주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 주십시요!"

다음 날, "강목사"는 눈물의 송별과 안 떨어지려는 가족들을 재촉하여 비는 내리고 황무지 같고 아무도 맞이하는 이 없는 농촌교회 예배당의 십자가 앞에 엎드렸다.

"강목사"가 떠난 교회는 자연히 후임자의 문제로 여러 의견의 갈래를 이루었다.

그래서 모두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장로회의를 열었고 장로들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장로: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후임자로서 "김전도사"는 불가하다고 생각하오. 이유는 그가 같은 교단이 아니라는 점과 전임목사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목회의 경험도 시골에서는 어떠하였는지는 몰라도 서울에서의 목회를 과연 제대로 감당할련지, 교단 총회에서도 이를 인정할련지 도저히 불가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나의 의견을 받아 드리지 않으면 나는 결국 다른 교회로 가야 할 것이요".

박장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인물들이 모

여있고,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어찌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무식해 보이는 시골교회 목회자를 모실 수 있단 말이요"

최장로: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었소만, 나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앞으로 몇 년간만 존재한다면 몰라도 "강목사"가 있어도 다음의 목회자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소, 교회란 늘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요, 설사 그가 좀 못 배웠다고 합시다. 좀 태그닉이 부족하다고 합시다.

목회는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기에, 그의 사역의 짐을 나누어 져 주면 되지 않겠소, 영적 깨어 있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면 되리라 봅니다"

이장로: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교단도 없고, 총회도 없고, 헌법도 없단 말씀이요, 그가 우리 교단의 사람이라면 한번쯤 양보를 할 수 있겠으나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소, 그가 아니어도 우리 안에 그만한 사람이 없겠소"

모장로: "모든 분들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나 이중에 그래도 제일 늙고, 이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내 말을 좀 들어 보시요!. 불초 쓸모없는 노인의 말이라 하지 말고 우리가 과연 주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하여 봅시다.

제 생각에는 "성경의 예"가 먼저 일 것이요, 다음의 총회 헌법적 차원은 교회가 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소이다. 더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경한 전임 목사의 소원도 우리가 그를 생각하여 들어 담을만하다고 봅니다만..... "

강장로: "그렇습니다. 저도 모장로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곳이요, 그의 학식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조금 못 배웠다면 그 많큼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세"는 실패자로서 광야에 있다가 부름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자신은 작은 아이라 하였으며,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비범통에서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지 않았습니까?,

신약에서는 베드로 및 11사도가 어부요, 관리요, 당원이며, 학문이 없는 무리들이였지 않습니까?"

정장로: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하오만, 바울은 어떻소, 그도 박해자로서 누구 하나 끌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바나바가 그를 발견하여 대사도로 탄생시켰지 않았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회가 없었기에, 아니, 누구 하나 돌아 볼만큼

의 협조가 없었기에 그가 그곳에 있어야 하였는지 모를 일이 아닌가요, 그가 자격이 부족하다, 뭐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장로교의 예정 5대 교리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원"이 나에게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자랑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에 견주어 이제 "김전도사"를 초빙하는 문제도 우리의 뜻과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그를 성령님이 허락하신 분이라고 믿고, 나머지 일들은 그가 와서 하는 목양을 보면서 세워 봅시다.

잠시 침묵이 있은 후 "모장로"는 대표로서 전임목사의 뜻을 존중하기로 밝히고, 공동회의 격렬한 토론 끝에 장로들의 책임 아래 "김전도사"는 "타교단"임에도 초빙이 허락되어 부임을 하게 되였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시골구석 미자립 교회로 내려와 있는 "강목사"는 있었던 교회에서 보내 온 한 통의 편지로 마음이 심히 번잡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히스기야처럼 기도 하는 중이였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사님!. 떠나신 후에 일어난 교회의 일들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몇 분의 장로들과 집사들은 "강목사"를 모시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우리교회는 "강목사"가 아니면 은혜와 성장을 할 수 없다 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떠나든지, 타 교단에서 이입오신 "김전도사"를 보내고 보다 유능한 목회자를 초빙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교회와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내용이다.

강목사: "주님! 참으로 어찌 그들이 그리도 주님의 크신 뜻을 따르기 보다는 자기의 입맛에 맞추어 줄 설교자를 찾는다 말입니까?, 어찌하리까?,

이 편지를 주님이 보시고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목사는 한 주일을 있었던 교회로 설교를 하기로 하고 그들을 만나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로 작정을 하고 약속한 날 설교를 시작하였다.

설교:

"성도님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리도 흩어지고, 찢기어진 원인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기에 비로소 그 사랑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천국 가지가 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찢어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일 뿐 아니라 흩어져 찢기여야 합니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입니다. 피 흘리지 않는 교회의 성장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은 없습니다.

나의 피가 흘려질 때, 복음의 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열매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총을 따라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게 보낸 편지를 보아서 꼭 "강목사"만 맡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이기보다는 "강목사의 교회와 교인들"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그 사람"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친목계나, 그룹이나, 명 강의를 듣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는 자세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진실로 바라며, 저는 다시 내려가니 다시 찾지 마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장로들과 교우들: 이들은 좁은 의미에서의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광의적 교회의 의미로서 새롭게 주님의 지체를 형성하게 되였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잠시 자기들의 전유물로 특권으로 생각하였던 좁은 생각에서 돌아서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이루기로 다시 뭉치게 되였다.